

국립중앙도서관도 주목한 '책의 도시' 전주

국립중앙도서관장 일행,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책기둥도서관 등 방문 김승수 시장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 갖고 도서관 정책 발전방안 등 논의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책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에 주목했다.

전주시는 서해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이신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을 이 1박 2일 일정으로 지난 30일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서해란 관장과 이신호 관장은 이날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찾아 전국 최초의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을 견학했다. 이어 전주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과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확산숲속시집도서관 등 다양한 특화도서관을 방문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일행은 또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다양한 도서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도서관 정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해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이신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지난 30일 전주를 찾았다.

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도서관 정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 △가보고 싶은 책 여행도시 △책의 거리 등 5개 중점방향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해란 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전주시 도서관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의 긴세대인 트윈세대 전용공간 우주로 1216에서 큰 영감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공간이 전국에 확산돼 아이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거점 공간이자 창의력을 키우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전주 곳곳에 특색있는 도서관을 조성하여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인문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간담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성과 보고·향후 개선방안 등 논의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봉)는 지난 30일 '2021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의 대상학교 특수학급 담당자와 교사, 관찰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후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특수학교, 장애 비장애 통합학교 및 장애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교구를 활용에 진행하는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올해 장애인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 학교 12그룹 732명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 인권 교육 대상학교 특수교사와 교사, 관찰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전과 교육 후 아동·청소년의 인식변화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 향후 사업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및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장애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지원 및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사)탁틴내일이 운영하는 성교육기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문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063-251-1318)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부터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단계별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중 조흔동과 호성동 등 하우스 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겨울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기상특보상황과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요령 등을 전파하게 된다.

또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 재해복구 및 신규 설치시 35cm 이상의 눈에도 견딜 수 있는 내재해 규격 설계도에 의한 설치지도 및 홍보 강화로 사전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설물 사전점검·정비와 농업기술센터 내 부서별 응급복구지원 담당지역 지정 등을 통해 폭설(적설량 15cm 이상)시 신속한 대처로 농업시설물 재해 피해 경감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폭설 피해 발생 시에는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도·시·동 재해 담당자의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받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식품홍보관 '전주맛배기' 발길 이어져

지난 9월 말 개관 이후 관람객 1600여 명 방문

전주한옥마을에 등지를 뜬 전주식품홍보관인 '전주맛배기'에 시민과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식품업체의 시장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경기전 근처에 지난 9월 29일 문을 연 '전주맛배기'에 현재까지 16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전주맛배기'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가공식품을 홍보하는 전시공간으로, △전주미나리빵(깎파뉴, 카스테라 등) △전주미나리주 △미나리만두 △복숭아식혜 △복숭

아복덩이떡 △전주모주초콜릿 △전주비빔면 △도라지수제끼리떡 △전주수제맥주 △검은콩미숫가루 스틱 등 15개 기업이 생산한 38개 가공식품이 월별·주제별로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다.

특히 전주맛배기에서는 전주에서 생산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에 대한 무료 시식·시음행사도 진행돼 전주의 다양한 맛을 체험하거나 가공식품의 특색있는 변신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전주맛배기를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지역 식품가공업체들의 흥

보 및 매출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주맛배기에 전시된 제품 대다수가 최근 신규 개발돼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니리빵 등 빵류는 단체주문량이 많아져 월 매출액이 100만 원 정도, 만두는 60만 원 정도 매출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 미니리 막걸리의 경우에도 최근 신규 거래처가 3~4곳이 발굴되는 등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는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및 지역소재 식품기업과 협업을 통해 미니리 누룬지 초콜릿과 초콜나무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영세소상인 중심의 식품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이들 상품의 디자인, 포장, 마케팅 등 상품의 고급화 및 판로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권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증가할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여행지로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주시, 30일까지 1만1792명

전주시가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내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2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 1만1792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모집인원으로는 공익형 일자리 9820명, 사회서비스형 1972명 등으로, 공익형은 1~17일, 사회서비스형은 20~30일 각각 주주지 중 주민센터 및 17개소 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는 내년도 사업에 전문성 있는 은퇴인력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형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692명 늘렸다.

참여 자격은 공익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

형 등은 60세 이상 사업단별 전문성 있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노인들은 공익형 기준으로 11개월간 주 3회, 하루 3시간씩 근무 조건에 매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10개월간 주 5회, 하루 3시간씩 근무 조건에 매월 71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내년에 시니어 설문조사 전담사업단, 시니어 초록정원사, 도시텃밭관리사 등 시정과 연계된 신규 일자리와 사전명의로의향서 상담사, 자살예방 상담원,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등 노인의 경륜과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